

2023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목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고와 ‘헌혈’
<p>1997년 푸르렀던 어느 봄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p> <p>그 시절 ‘의사’ 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에 일찍 등교하기 위해 동이 트지도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 버스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신호등의 파란색 불빛에 가벼운 발걸음이 더 날아갈 듯 움직였습니다.</p> <p>오늘도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화창한 날씨를 예고하던 이어폰 속 라디오 음성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행복감을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p> <p>아침 안개를 걷으며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점점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충분히 ‘내 앞에서 멈추겠지’ 하는 생각으로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끼-이익... 쾅!</p> <p>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내 몸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깜빡깜빡 정신이 되돌아올 때쯤, 겨울 바다처럼 차가운 도로, 뒤에 바쁜지 모르겠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어떻게든 나를 정신 들게 하려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교통사고가 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p> <p>그 순간 열아홉의 나이에 부모님 생각, 학교 생각, 공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의 중간고사, 모의고사, 내신 관리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적어도 그때 그랬답니다.</p> <p>그러고 나선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산소 호흡기로 인해 호흡은 뒤에 막힌 듯 더 답답하였고,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쁘게 대화하는 의사들 사이로 이곳이 병원임을 깨달았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에게 전화하고 수술방을 알아보라는 다급했던 의사 선생님의 대화에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스르륵 정신을 잃었습니다.</p> <p>정신이 다시 들었던 때, 말로만 듣던 중환자실에 몸이 누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양쪽 팔에는 링거가, 오른쪽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 위반을 한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20여 km 떨어진 작은 섬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p> <p>다음 날 아버님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님의 눈에 맺혔던 그 눈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열아홉에 처음으로 보게 된, 늘 냉철하시고 엄격하셨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라니... 차마 ‘어떻게 된 거냐? 아프지는 않냐?’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흐르는 아버지의 눈물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느</p>	

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저였지만, 아버지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이 들어 소리 내지 못하고 함께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의 교통사고로 쇄골 및 세네 군대의 갈비뼈 골절, 사람 뼈 중에 가장 단단하다던 오른쪽 대퇴부 분쇄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족 모두가 치료 기간 동안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택시 기사를 원망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회사 택시에 보험까지 들어 있으니 가해 택시 기사는 전화 한 통,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퇴부에는 철심이 박혔고 매일 수없이 많은 약과 주사들을 먹고 맞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호전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코앞으로 대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공부를 잘하던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병원으로 찾아와 제 수능고사를 위해 요약정리를 도와주었고, 더불어 제 내신 관리에도 함께 힘써 주었습니다. 수업 일수, 수능과 졸업이라는 목표를 갖고 봉고차를 빌리고 목발을 짚으며 학교를 힘들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후 2, 3차에 걸친 수술을 받아 제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했던 수술마다 「수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형이 같은 피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헌혈』이라는 자원봉사를 통해 얻어지는 결실, 그 피로 제가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쾌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면 꼭 ‘헌혈’을 통해 제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겠다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어 졸업할 수 있었고, 반 친구들 덕분에 수능도 잘 치렀으며, 비록 공부를 남보다 많이 하지 못해 의사라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998년 어느 대학,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절, 비록 완치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게 되던 날, 경기도 수원의 어느 한 헌혈의 집에 찾아간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문진과 철분 검사를 한 이후 저는 드디어 헌혈할 수 있는 의자에 제 몸을 누울 수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전혈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 나도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은 35살이 넘어 득남(아들)을 했던 순간만큼이나 제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하루로 당당히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2002년 교사가 되었고, 2023년 현재 22년 차의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1호 정보(컴퓨터) 교사’로 지내고 있는 저는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선구호활동반, RCY반’ 등의 계발 활동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적십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록 자라는 아니지만 지난 2006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정기 후원도 하며 제가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꼭 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모든 이에게 전파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헌혈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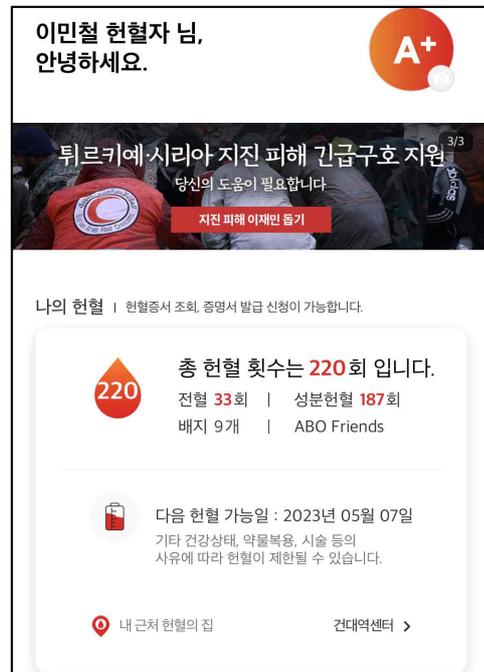
저는 현재 일까지 총 220회(전혈 33회, 혈장 174회, 혈소판 11회, 혈소판혈장 2회)의 정기적인 헌혈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된 헌혈 모임 관련 오픈 단체방에서 무려 600회가 넘는 횟수를 지닌 나이 지긋한 어른을 접하며 지금보다 더 나아가 앞으로 더욱더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와의 약속을,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다짐 또 다짐하며 건강한 삶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기를 당시 저를 치료해 주셨던 이름 모를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과 고3 시절 병원까지 오가며 친구의 수능고사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 준 제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헌혈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 입니다!



▲ 나이 34세, 100회 달성



▲ 나이 45세, 220회 달성